

# 광주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신설 추진

## 외국인 기업 유치 '필요 조건' 대구 등 타지역 방문 조사작업 '설립위한 다각적 검증 진행중'

광주경제자유구역청(광주경자청)이 외국인 기업 유치의 강력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자청은 최근 대외활동 강화에 나선 신석기 청장을 중심으로 대구 등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 입지, 정원, 수업 내용 등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 확인·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해당 부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경자청 핵심 관계자는 17일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학교가 들어설 부지나 수요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선 국제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운영 중인) 타 지역을 방문하는 등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광주경자청의 변화를 지역 경제계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민선 7기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021년 1월 설립됐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경제지역을 말한다. 광주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과 함께 지정됐고, 이듬해 1월 광주경자청을 개청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청 직후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적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기업 유치에 극심한 애로를 겪어야 했다. 여기에 '내부 정비'를 이유로 대외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면

서 개청 3년 간 외국인 투자기업 2건 유치에 그쳤다.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악재가 있던 했지만 광주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서 "광주경자청이 '협업'이나 '세일즈'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광주는 △국내 최대 미래차 인프라 구축 △친환경자동차 중심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 △AI 전문인력 양성 △전국 최초 국가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구축 등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있다. 아직 태동 직전이지만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분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업이 오기에는 교통이나 학교 등의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학교에 대한 지적이 컸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가장 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국제학교 외에 한 곳을 더 추진하는 등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조건 충족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 이외에도 현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한 외국인 교육기관은 채드 워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경북) 등 2곳으로,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뛰고 있는 대전과 세종 시도 '국제학교 신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광주만 국제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특별한 계획없이 침묵을 유지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취임한 신석기 청장이 곧바로 대외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신 청장의 지휘하에 이번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신 청장은 "지금 광주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유치를 하기엔 부족하다"면서 "강기정 시장과 상의해서 인공지능(AI) 실증 벨리에 경자구역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청장은 "협업에 대한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기업 유치는 광

주경자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광주 전체가 단합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자청 관계자는 "국제학교 부지는 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힘들다. 구역이 확대돼야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때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의 타 지역 방문 등은 그에 따른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자청은 지난달 28일 북구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산학연협의회'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 협력방안과 광주경제자유구역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사무국, 여수가 적격지"

### 전남연구 "여수엑스포 시즌2 발판"

유엔 산하 동아시아해역 정부 간 기구인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이하 COBSEA) 사무국을 여수에 유치해 '여수세계박람회 시즌2'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탄소중립시대 해양환경 분야 국제기구의 여수 유치는 섬박람회, COP33 개최에 나선 여수를 해양환경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남연구원은 17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2년 여수박람회에서 '여수선언'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표명한 여수시가 COBSEA 사무국 유치에 가장 적격지"라고 주장했다.

COBSEA는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 7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

(UNEP) 지역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최근 해양환경 보호 분야의 초국가적 협력과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대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2년마다 열리는 정부간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해양과 연안오염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COBSEA는 2009년 제20회 정부간회의 이후 재정 여건과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현 방콕에 있는 사무국을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10월 COBSEA 사무국 국내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정부와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 의견 불일치로 성사되지 못했다.

연구진(김대성 선임연구위원, 김태형 부연구위원)은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COBSEA 사무국을 유치해 해양환경 국제기구 의제를 발굴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BSEA 사무국을 여수에 유치할 경



동구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진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자, 관내 장애인들이 17일 동구 다목적체육관에서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구호를 외치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있다. 나건호기자

우 탄소중립시대 해양환경 관련 전남의 국제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부간회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 마이스(MICE) 산업 육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다. 나아가 동아시아 해양 관련 '지속가능한 이용'의 국제거점으로 활용하고 여수 박람회 이후 섬박람회, COP33 개최 등과 연계시킬 정부 간 플랫폼 기능도 수행하고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는 판단이다. 연구진은 끝으로 "COBSEA 차기 정부 간회의에서 사무국의 국내 유치 의제 설정이 필요한 만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곽지혜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Yes &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